

##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

|          |     |
|----------|-----|
| 의안<br>번호 | 129 |
|----------|-----|

제출년월일 : 2005. 4. 15

발 의 자 : 이근선 의원

외 10인

### 1. 제안이유

-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분명함에도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독도)의 날'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주권 침해행위로서 국제 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왜곡 또한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근린우방국의 자존심을 다시한번 짓밟는 행위로서 말로만 우방을 외치는 일본정부의 망발적이고 소아병적인 작태의 재발이 과연 인류평화를 추구하는 지구촌의 일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바,
- 일본정부에 대해 시마네현 의회의 무지한 행위와 우익 보수세력들의 자학적인 행동들에 대해 더 이상 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근린 우방국과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

##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규탄 결의문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미 삼국시대인 512년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신라영토에 귀속시킨 이래 1500년간 줄곧 한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것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명백백한 사실임에도 1905년 1월 28일 일본 각의에서 독도를 무인도로 독단하여 일본령으로 편입결의 하고, 무지한 시마네현 의회는 자신들의 부속도서로 고시한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의결한 바,

이는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자학적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정부의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주권침해 행위이며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1982년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교과서의 상당부분을 개정한 이후 틈만나면 역사교과서 왜곡을 획책하고 있으며, 전후 패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80년대 이후 과거 역사를 미화하려는 소아병적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금년은 한일 수교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하여 활발한 경제적·문화적 교류가 필요한 시기에 한일간 우호의 틀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일본의 망발적 행태에 대해

우리군의회는 16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일본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조례의 파기와 일제의 군국주의적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강토인 독도영유권 수호에 온 국민과 함께 할 것을 굳은 의지로 천명한다.
- 일본정부는 부끄러운 과거사를 축소·왜곡하는 역사교과서 제작을 포기하고, 과거사 진실에 따른 희생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죄하라.
-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빚어질 양국관계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일본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양심회복 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결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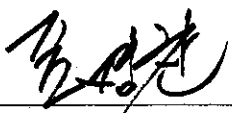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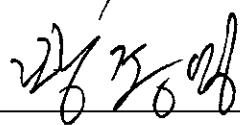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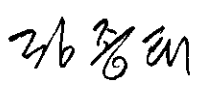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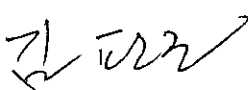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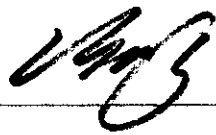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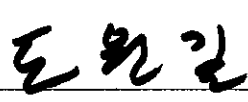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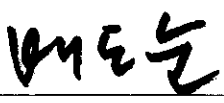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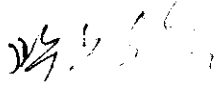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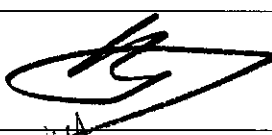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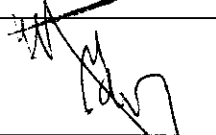

2005년 4월 15일

**달성군의회 의원일동**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탈 및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결의안】

- 이근선 의원 외 10인 발의 -

## 서 명 날 인 부

| 소 속     | 성 명   | 서 명  | 비 고 |
|---------|-------|--|-----|
| 달성군의회의원 | 표 명 찬 |     |     |
| "       | 방 종 영 |    |     |
| "       | 정 종 태 |     |     |
| "       | 김 판 조 |  |     |
| "       | 이 근 선 |  |     |
| "       | 도 원 길 |  |     |
| "       | 배 도 순 |  |     |
| "       | 박 노 설 |  |     |
| "       | 김 삼 도 |  |     |
| "       | 유 판 호 |  |     |
| "       | 성 증 도 |  |     |